

현 불 뉴 스

시찰문화재관람료 국립공원입장료 분리징수 "절대 반대"

공원공단 문화재관람료 인상폭 재조정 요구 대립국면 조장 조계종 '사찰토지 공단시설 철수' 등 자율권 침해 적극 대처

지난 18일 관료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가 결정한 사찰문화재관람료 인상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남)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어 불의를 빚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급변 문화재관람료 인상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대폭인상으로 합동징수할 경우 민원이 공단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각 공원관리사무소에 발송

하고 매표소위치, 입장권관리 등 분리징수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공단은 또한 관람료의 적정한 인상율을 20%로 제시하고 당해사찰과 협의하도록 지시, 불교계의 관람료제정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공단의 분리징수추진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5년간 물가인상률은 평균 5.6%, 공원입장료는 6.9%인 반면 문화재관람료는 2.02%에

불과했다"며 "관료위원회가 종현 공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들어 분리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합동징수사찰중 한군데라도 분리징수를 강행할 경우 공동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원매표소 등 공단시설을 사찰소유토지박으로 철수 △문화재관람료없이 사찰소유토지 출입금지 △공단

관리소와의 업무 거부등 중단차원의 대응책을 합동징수사찰에 시달렸다.

총무원은 또한 "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문화재관람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뒤늦게 공단이 공원입장료를 추가 징수해 이중징수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운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있는 불교계와 공단은 분리징수에 따른 분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향후 분리징수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이준엽 기자)

"은처·도박승 척결하겠다"

월주스님, 중정예방 상반기 업무보고

은처승과 승려들의 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이 조계종단 차원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보정재 수호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하리"고 유시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2일 상반기 업무보고차 월하 중정스님을 예방하고 "중단내에 은처승과 도박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중정스님은 "계율을 어기는 수행자는 근절해야한다"며 "상반기 업무사항을 보고했다.

월주스님은 이날 △중정승무자관 포상정제화 △중정승무자관의 정규대학 승려취진 및 이 전학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자율화 추진 △가야산 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운동 추진 △중정토지사 할 실명화 및 종로세대처등 상반기 업무사항을 보고했다.



골프로 부서지는 대장경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한 시민결기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해인시대적 위, 덕극대대취, 환경운동연합 등 8개단체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지 재교육 참가율 10% 증가

조계종 상반기 집계 본말사 400여명 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교역직종무원의 기능향상과 재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전국 본말사 주지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상반기연수회에 4백여명의 스님들이 참석, 지난해에 비해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은 또한 "본사주지를 비롯 중정스님, 삼직스님들의 능동적 참여로 교육열기가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고 "지역의 행정관료들을 강사로 초빙

할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 토초세등 54억 납부위해 '경외지 매각승인' 총무원에 요청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주지 성오)가 54억여원에 이르는 종합토지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기위해 총무원에 '경외지 매각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는 "채납세가 2만여명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8억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6억원등

모두 54억여원에 이른다"며 "세금을 납부하기위해서는 경외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경외지매각 요청에 따라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종교시설부지에 건축물이 들어 서 있어 납세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혀 금명간 토지매각을 승

정부 '가야산골프장 불허' 표명

李총리 국회서 밝혀 고법결정 번복가능성 주목

이수성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장의 조성준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을 반대한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조성준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전라도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온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골프장에서 사용될 농약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허가취소 용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수성총리는 "문체부에서 지난해 허가취소를 결정할 바 있다"며 "정부입장은 가야산에 골프장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유산과 해인사 보존을 위해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해인골프장 건설에 대해 정부에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사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결론이 주목된다.

우리는선우 '사단법인' 대외공신력 강화 계기

제가신행단체인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지난 18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는선우는 국제선우회 회장선우회를 비롯한 6개의 목적사업에 더욱 대외공신력을 갖춘 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열린 사단법인 발기인대회에서는 이사장에 박광서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남지심 상태용(건국대학교) 윤용숙(여성문제연구소) 김인숙(국민대학교) 윤정수(이남연구소) 정승연(다도연구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백혈병으로 생명을 불꽃이 꺼져가는 이인자양(10, 속초초등학교 4)에게 희망을 줄 후원자를 찾고 있다. 이인자양은 지난 1일 갑자기 70~80만원의 생활비로 딸 넷을 키우던 이양의 부모들은 청정벽력같은 이양의 진단을 받고 실의에 빠져 있다. 이양의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생명나눔실천회는 항

"백혈병 어린이에 자비를"

생명나눔실천회 수술비등 후원자 모집

기 쓰러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 임파선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1110호에서 임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찰에서 한달

암치료와 수술비, 입원비 등 이양과 가족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줄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02)734-8050

진흥원 '다보수련원' 20일 개원

故장경호거사 흉상제막식도...1천여명 동참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20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현지에서 다보수련원 준공제막식 및 고장경호거사 흉상제막식을 봉행했다. 큰법당 봉안식·수련원 준공제막식에 이어 기념식수, 흉상제막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회와 불교계 인사, 불교TV대표이사 태용스님, 서도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김중호 국회의원, 김환국 괴산군수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1천5백평의 부지에 법당 수련동 생활동이 들어선 다보수련원은 1백여명이 동시에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

선암사 환경수호 부산시민 쫓겨내기대회

전통사찰선암사도량수호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덕운스님)는 지난 20일 부산역광장에서 백양산자연보호회 등 전통사찰선암사 도량수호 부산시민 쫓겨나기대회를 봉행했다.

전승원 중앙승가대학 백양산 선암사대책위 김정산살리기 시민단체대위 대대포아미산보존대책위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쫓겨나기대회에서는 강제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86억원의 공탁보증을 불태우는 등 사찰환경 보호를 위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또 이날 쫓겨나기대회에서는 △수용된 토지 천연기념물의 범람반대 △강제수용된 토지의 반환투쟁 △부산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범어사주지 성오스님은 대회를 통해 "금정산 광명산 백양산의 개발은 전 부산의 명산을 아파트 유력장 등 시멘트로 덮어 부산시민의 호흡을 멈추게하는 살인적개발정책으로 가시적인 개발이익에만 집착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도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불교는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하여 불교정토를 현세에 건설시키는 모험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보수련원은 재가불자교육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천만의 깨달음을

나를 바로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8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제주지사 · 전화 064-55-9800

사천지국 · 전화 0593-32-5160

강릉지국 · 전화 0391-647-9317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전국지사·지국 보급소 모집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일할 지사, 지국 보급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1. 자격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분, 불심이 돈독하여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자필 이력서 1통, 주민등록 등본 2통
3. 대상지역 전국 각 도·시·군·구
* 광주, 부산, 대구, 목포, 공주, 사천, 제주, 강릉, 부천지역 제외
4. 모집기간 96년 7월1일 ~ 7월 31일
5. 선 발 서류전형후 개별 통보
6. 보 낼 곳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

교직자 양성 전문 교육

제2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선학수)

■ 교육기간 : 3개월(과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8월 1일 ~ 8월 31일

■ 개강일시 : 1996년 9월 2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중급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학)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